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1차 50건 발굴

정부, 시행령·규칙 등 행정입법 통해 17건 해결·6건 법 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 계획

앞으로 은누리상품권의 모바일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의료행위 범위가 명확해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출시가 활성화된다.

정부가 이처럼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1차적으로 50건을 발굴해 해결에 나선다.

정부는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로 1차적으로 50건을 발굴했다.

이 중 시행령·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17건을 해결하고 고시·지침·내규 및 유관해석 등을 통해 27건 해결할 예정이다. 나머지 6건은 법 개정이 필요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장 개선 가능한 17개 과제는 올해 1분기중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 중에 17건, 2~3분기 중에 12건, 4분기 이후에 21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분야별로 경제분야 현장규제는 27건, 신(新)서비스시장 활성화 과제는 14건, 행정규제·그림자규제는 9건 등이다.

우선 특수항만 건설시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해 주면 사업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용역비도 8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폐수배출시설 입지기준도 합리화한다. 이로써 공장증설 등 신규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차별적 규제도 개선한다. 이는 고용정착 유도하기 위해서다.

경량항공레저스포츠 창업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허용시설도 확대한다. 레저스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의료행위범위 명확화 기반 마련, 은누리상품권 모바일 이용허용, 외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이용편의 제고 등을 추진한다.

방산수출 입찰보증 허용,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 연장, 공공기관 운영지침 대폭 간소화 등 행정규제·그림자규제도 개선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득권·이해관계 보호 등을 위해 신시장·신수요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선정하겠다"며 "그리고 국조실·기재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뉴스



"따뜻한 밥상 나눔으로 온정 전해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7일 고창군 고창읍에 위치한 고창군노인복지관에서 설맞이 행사인 '2018 설날 따뜻한 밥상, 떡국 나눔'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전북은행 이영태 시외지역금융센터장, 이근태 고창지점장을 비롯해 지역사랑봉사단 20여명은 어르신 300여명에게 떡국 및 다과를 나누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전북은행 제공>

“지역경제 더욱 활성화 될 것”

농협은행 전북, 신용보증재단에 4억4900만원 기금 출연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7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4억4900만원의 기금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기금을 출연해 현재까지 총 70억여원을 출연했으며, 이는 도내 금융기관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번 기금 출연으로 농협은행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과 경영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농협은행 김장근 전북본부장은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금 출연으로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서민 위한 ‘안전망 대출’ 출시

내일 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서민들을 위한 안전망 대출이 출시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일 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시행된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대부업체들의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7.9%에서 24%로 3.9%p 낮아진다. 또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된다.

하지만 최고금리 인하시 상당수 서민들 중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안전망 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안전망 대출은 상환능력이 있으나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자금 이용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다.

최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진 경우를 우선적으로 한다. 또 고금리 대출을 청산하고 싶지만, 해당 대출이 만기일 시상환대출로 한 번에 갚기 어려워 단계적 상환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된다.

안전망 대출의 지원 요건은 이전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를 가운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인자 등이다.

대출한도는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기존 2%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하는 범위이며 대출 취급은 전국 15개 은행이다. /뉴스

설 연휴, “관광지보다 ‘쉽표’ 여행 선호”

작년 한 해는 유독 긴 연휴가 많았고, 앞선 추석 역시 열흘 가량의 최장기간 연휴였다. 이에 반해 다가오는 설 연휴(15~18일)는 겨우 사흘이다. 짧은 연휴에는 부담 없이 다녀오기 좋은 국내여행이 제격이다.

인터파크투어는 설 연휴를 활용한 국내여행 계획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972명)의 65%가 국내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여행 계획 이유는 ‘쉽게 떠날 수 있는 접근성’(44%), ‘고향방문과 여행이 동시에 가능한 점’(21%)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여행 동반형태에 대해서는 ‘부모님’(29%), ‘자녀’(28%), ‘배우자·연인’(25%)가 1~3위를 차지했다. 혼자(7.9%) 혹은 친구(7.6%) 대비 월등히 높았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인 만큼 가족여행을 선호했다. 아울러 여

행을 떠나는 지역은 ‘제주’(32%), ‘강원’(15%), ‘서울’(9%) 순이다.

여행의 목적은 ‘힐링·휴식’(49%), 호텔에서 쉬고 즐기는 ‘호캉스’(20%)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유명 관광지 방문’(7%), ‘SNS 핫 플레이스 방문’(6.7%), ‘숨은 명소 방문’(4.1%) 등 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다.

숙박 형태는 ‘호텔’(52%), ‘리조트’(22%), ‘펜션’(18%) 순이다. 설 연휴 여행 기간은 ‘2박 이상’(46%), ‘1박 이상’(32%), ‘3박 이상’(15%) 순으로 선호했다. 1인당 여행경비는 ‘10만~20만원대’(34%)와 ‘20만~30만원대’(30%)를 계획했다.

한편 인터파크투어는 오는 8~28일 ‘국내호텔 베스트 어워드’ 기획전을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호텔 무료 숙박권, 여행지원금·영화예매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뉴스

“혁신성장 큰 축은 규제혁신, 국민 입장 해결 모색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혁신성장의 또 다른 큰 축은 규제혁신이며 규제개혁의 핵심은 ‘현장·속도·기득권 타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양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처음으로 현장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운을 땀 땀 부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부총리는 “우선 작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밀착형·체감형 규제 5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처음으로 현장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색다르고 특별한 혜택 마련

홈플러스, 밸런타인데이 프로모션 진행

홈플러스(사장 임일순)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오는 17일까지 전국 142개 모든 점포에서 초콜릿 등 스낵류 할인판매와 사은품 증정 등의 밸런타인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특히 홈플러스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단독 기획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단독 기획상품을 1개만 구매하더라도 각 브랜드별로 마련된 사은품도 함께 증정한다.

홈플러스가 협력사와의 협업을 통해 선보이는 단독 기획 상품은 ▲킷캣 미니 그린티 파티팩(339g·30개입, 9900원) ▲킷캣 미니 오리 지널 파티팩(348g·30개입, 9900원) ▲허쉬 키세스 아몬드(283g, 6900원) ▲허쉬 키세스 트러플(283g, 6900원) 등이다.

이들 제품을 1개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각 제품에 따라 ‘네슬레 킷캣 쿠키’, 키세스 초콜릿 모양 ‘밸런타인 무드쿵’ 등의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이밖에 ▲ABC초콜릿(200g, 1990원) ▲로아커 쇼콜라 미니스(285g·30입, 4990원) ▲로아커 가데나 킷캣(375g, 4990원) 등 인기 초콜릿 상품도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벨기에에서



단독 직수입한 ‘심플러스(simpul) 벨지안 밀크초콜릿(100g)’, ‘심플러스(simpul) 벨지안 다크초콜릿 72%(100g)’, ‘심플러스(simpul) 벨지안 헤이즐넛크런치(100g)도 각각 1000원에 선보여 고객들의 가성비 확보에 앞장선다.

한편 홈플러스는 행사기간 동안 제과·음료 행사상품을 밸런타인데이인 2월14일을 의미하는 ‘2만 14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슈즈 멀티숍 ‘슈마커’에서 사용할 수 있는 2만원 상품 교환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새나 홈플러스 제과음료팀 바이어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고객들께 보다 색다르고 특별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협력업체와 단독으로 개발한 홈플러스 전용 기획제품과 증정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